

# 물류, 산업, 금융교류: 남북한 시장 단일화의 구심력\*

이유진 | 한국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 연구위원 | yjrhee@kdb.co.kr

## 논의의 전제

본고의 논의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인적교류 확대와 남북경협 추진

남북한 하나의 시장 구축 핵심은 인적교류에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 산림, 역사, 문화, 체육 분야 교류는 앞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상업, 금융, 과학, 보건 분야의 인적교류 확대도 필요하다. 남북한 하나의 시장 구축은 남북간 물류, 산업, 금융으로 이어지는 시장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까지 진출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 남북한 물류·유통분야 교류·협력방안

남북은 철도, 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12월 26일 북측 판문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의 교통, 물류 연결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과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반도 교통과 물류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하나의 물류·유통 시장 협력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본 글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첫째, 북한의 각 시, 군 소재 상업관리소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를 물류창고로 이용하는 동시에 상업관리소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의 상업관리소는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지만, 북한정부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물류창고를 증설 및 현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주요 개방지역인 개성공업지구, 평양, 나선특구, 신의주특구에 전산배송 시스템을 갖춘 물류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남쪽에서 해당지 물류센터까지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농축산업의 경우에는 사료, 비료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주요 농축산 물자 운송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북한의 온라인 판매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북한은 국영 온라인 판매망인 「옥류」 등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자제품 판매망인 「만물상」도 활성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한의 온라인 쇼핑망을 북한과 결합한 남북 동시 온라인 유통 판매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남북한 산업분야 교류·협력방안

북한의 전력 부족은 산업발전의 결정적 저해요소다. 북한 에너지 설비의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 단위 중소형발전소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접경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송배전망에 투자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하나의 배전선에 다수의 지선이 연결되어 있어 전력의 품질이 매우 낮다. 대형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의 가스 및 전력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13년부터 북한은 국산화를 통한 경공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식품가공업 및 음료품 등의 경공업 분야는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시장 판촉에까지 나서고 있고, 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품질과 디자인도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북한의 유망 경공업 제품으로는 화장품, 누에고치 섬유, 의약품, 건강식품 등을 들 수 있다. 경공업은 중공업에 비해 남북이 하나의 시장을 구축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대북투자를 통해 북한의 경공업 수준을 높이고, 남북이 공동 생산한 제품을 북한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주변국으로의 수출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중공업 분야의 협력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북한의 국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간산업인 화학·금속 산업분야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구축된 에너지 인프라는 석탄 위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석유 및 천연가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석유화학기업이나 철강기업의 북한 진출을 통한 협력으로 북한 중공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서비스업은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이후 가장 활성화된 부문이다. 평양시 광복거리종합서비스 시설, 해당화관 등 국가 차원의 서비스부문이 커지고 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서비스 제공도 확대되고 있다. 남북협력을 통한 하나의 서비스업 분야 시장 구축은 러시아와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것이다. 해당 시장들은 남북한 서비스 협력의 주요 해외기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은 중국인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용, 식당업 등의 분야에서 남북 공동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 남북한 금융분야 교류·협력방안

남북한 금융시장의 구축은 하나의 시장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남북경협에서 금융시장의 구축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현재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은 재원조달을 위해 이원적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 카드사용 확대를 통한 사금융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남북한 금융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 상업금융의 활성화와 함께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북한의 상업은행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제고,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금융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남한의 금융 인프라 개발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 지역에서 사금융 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의 북한 지역 진출이 활성화되면 남북합작 상업은행 설립, 국내은행의 점포망 진출 등의 남북한 금융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은행, 무역은행, 상업은행의 정상화와 활성화에 있어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한다면 금융분야에서 하나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